



유선영 “선두 계 썼거라”



CVS 파머시 LPGA 켈린지 3R 오초아에 6타차 3위 맹추격

유선영(23·휴온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VS/파머시 LPGA 켈린지 3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유선영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덴빌 블랙호크 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 땀으며 3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다. 한국 선수로는 양희영(20·삼성전자)이 한국계 미국인 비키 허스트(19·캘리포니아), 제미교보 김초롱(25)과 함께 8언더파 208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또 강혜지(19)와 정지민(25)이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인경(21·하나금융)은 공동 38위(중간합계 2언더파 214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전통종목 씨름 “으랏차차!”

27일 속초에서 열린 '2009 전통종목 전국대회'의 씨름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있다.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2009 전통종목 전국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천5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해 씨름과 줄다리기, 족구, 궁도, 국악기공, 태권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연합뉴스

문지희·이인복 등 전남 출신 맹활약 바이애슬론 혼성계주 6위

한국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2009 하계 바이애슬론 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6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25일(한국시간) 독일 오버호프에서 열린 대회 롤러 혼성계주 경기에서 여자 대표 문지희, 조인희와 남자 대표 이인복(이상 전남체육회), 전재욱(상무) 등이 각각 6km와 7.5km를 이어 달린 1시간11분49초1만에 결승선을 끊어 전체 11개 팀 중 체코(1시간11분48초4)에 이어 6위에 올랐다고 한국 선수단이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9위, 전남 7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성료

장애를 딛고 투혼을 발휘했던 인간승리의 축제 한마당이었던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6개 시도 6천3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5일간 열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광주주는 종합 9위, 전남은 종합 7위를 각각 차지했다. 20개 종목에 24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광주는 금 32개, 은 33개, 동 30개로 당초 목표였던 5위보다 4계단이나 하락한 9위에 그쳤다. 하지만 대회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 광주는 역도에서 남동훈과 김형희가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남녀부 각각 3관왕에 올라 순위 하락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또 이번 대회 첫 출전한 휠체어 펜싱에서는 박인수가 2관왕을 차지, 다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밖에 광주는 좌식배구 종합 2위, 축구 종합 3위 등 단체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남자 11인제 축구 IDD(지적장애인) 일반부에 출전한 광주엔젤팀(감독 한동기)은 선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24개 종목에 46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 17개, 은 45개, 동 67개(총 9천215점)를 획득했다. 특히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9계단이나 뛰어오른 선전으로 종합 7위를 기록하며 역대 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서승원기자 swseo@

“편도선염으로 경기 포기” 신지에 귀국

‘골프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편도선염이 심해져 일정을 바꿨던 27일 귀국했다.

신지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세마는 26일 “신지에가 편도선염이 심해져 다음 주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나비스타 LPGA 클래식 출전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신지에이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덴빌 블랙호크 골프장(파72·6천212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CVS/파머시 LPGA 켈린지 2라운드 5개 홀을 돌고 나서 경기를 포기했다. 세마 관계자는 “신지에가 삼상월드컵 피인심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주 덴빌로 이동한 뒤부터 편도선염이 심해졌다. 연습라운드도 9개 홀밖에 못 치렀고 프 로암에서도 편도선이 부어 말을 많이 하지 못해 동반 아마추어들에게 많이 양해를 구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고생 신궁’ 곽예지 金 명중

월드컵 파이널 리커브 여자부 우승...윤옥희 동메달

‘여고생 신궁’ 곽예지(대전체고)가 2009년 리커브 여자부온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곽예지는 26일 밤(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니호스 문화 수상 특별무대에서 열린 2009 FITA(국제양궁연맹) 양궁월드컵 파이널대회 리커브 결승에서 중국의 자오 링을 113-108(120점 만점), 5점 차로 꺾고 우승했다. 2006년 시작한 양궁월드컵 파이널은 올해 열린 1~4차 양궁월드컵 리커브와 컴파운드(양 끝에 도르레가 달린 활) 우승자끼리 겨루는 ‘왕중왕’ 성격의 대회로,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 남자는 2006년 박경모(공주시청)와 2008년 임동현(청주시청)이 각각 리커브 부문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곽예지는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는 윤옥희(여천군청)를 114-111, 3점 차이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윤옥희는 3-4위전에서 프랑스의 베랑게르 수를 116-106으로 가볍게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곽예지는 상금으로 2만 달러(2천300만원)를, 윤옥희는 5천 달러(590만원)를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

‘장타자’ 김대현 생애 첫 우승컵

한중투어 인비테이셔널

‘장타자’ 김대현(21·하이트)이 3연4기 끝에 한국프로골프(KPGA) 한중투어 KEB 인비테이셔널 2차대회(총상금 4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김대현은 27일 강원도 횡성군 오스타골프장 남코스(파72·6천652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한 타를 풀이하면서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올 시즌 준우승만 3번 차지하면서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김대현은 300야드가 넘는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이은호(23·토마토저축은행)는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풀었지만 김대현에게 한 타 뒤진 합계 4언더파 284타로 2위에 머물렀다. 또 3라운드까지 김대현과 공동선두였던 류현우(28·테일러메이저)는 합계 3언더파 285타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호석·조해리 ‘금빛 데이트’

소프트트랙 남녀 1,000m 우승

세계최강 전력의 한국 남녀 소프트트랙 대표팀이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소프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 남녀부 1,000m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호석·조해리 금빛 데이트

이날 금메달로 이호석은 전남 1,500m 우승에 이어 가볍게 2관왕에 올랐다. 함께 결승에 오른곽운기(연세대)는 마지막 바퀴에서 맴돌며 추월당해 2위 자리를 내주며 동메달을 차지했고, 이정수(단국대)는 4위로 밀렸다. 앞서 치러진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조해리(고양시청)가 1분31초377의 기록으로 중국의 예시왕(1분31초634)을 0.257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스폰스링클링 (Sponsor Ringli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s for Kim Byeong-jun and Kim Sang-woo, featuring properties with various amenities and prices.

Real estate ad for Jeon Gyeon, featuring properties with detailed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 for Haeryong,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features.